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¹⁾

김 혜 숙

아주대 심리학과

편견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을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편견의 인지적 근원으로 범주화과정, 사회정체 과정, 고정관념의 인지적 지름길로서의 과정과 고정관념의 과정이 동기, 기분에 의해 영향받는 측면을 들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편견과정이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인 최근 연구들을 개관하였고, 편견에 개입된 인지의 영향과 감정의 영향에 대한 앞으로의 주요 연구 방향으로서 집단범주의 유형과 판단의 유형에 따른 편견반응의 근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분야에서 보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연구 과제로서 소수 집단이 편견을 어떻게 지각하고 귀인하는가, 또한 그 심리적·실제적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들을 응용하여 편견감소를 위한 심리적 방안과 장치들을 제안하였다: 재범주화, 탈범주화 및 하위범주화, 역고정관념과 상위범주의 활성화,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의 고양, 편견통제과정에 대한 동기의 고양, 외집단과의 접촉 및 대리접촉, 사회적 낙인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 그리고 탈편견사회를 지향하는 규범의 형성과 통합적 교육이 제안되었다.

편견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 즉, 편견이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 그 집단 명칭에 의거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때 편견은 태도의 삼 요소인 신념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중 신념의 측면이 고정관념(stereotype)으로서,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지칭한다. 편견의 근원이 되는 감정적 측면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감정을 지칭한다. 편견의 행동적 측면은 차별(discrimination)로서 투표행동이나 고용 혹은 일상 생활에서의 친교 행동에서 집단 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지칭한다. 물론 편견의 이러한 세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Fiske(1998)는 원래 사회심리학의 전통적 편견 연구는 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의 연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좀더 역동적인 감정의 측면을 강조하였었는데, 80년대 들어 사회인지분야의 강세로 편견의 인지적 측면, 즉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관련 연구 분야에서 편견적 태도나 차별을 예언함에 있어 인지보다는 감정이 더 잘 예언해 준다는 연구 결과들(Dovidio, Brigham, Johnson & Gaertner, 1996; Haddock, Zanna & Essess, 1993, 1994; Stangor, Sullivan & Ford, 1991; Stephan, Ageyev, Coates-Shrider, Stephan & Abalakina, 1994)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편견의 감정적

1)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 파견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측면이 이전에 비해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Fiske, 1998).

편견의 인지적 근원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관련 학계의 주 관심 연구 분야로서 많은 연구들(주로 실험실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은 대별하여 범주화(categorization)에 대한 연구와 고정관념(보다 일반적으로 도식)과 기억, 인상형성 및 판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주화에 대한 연구들에는 범주화의 다른 수준(기본 범주, 상위 범주 등)과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Brewer, Dull & Lui, 1981), 하위집단화(subgrouping) 대 하위유형화(subtyping)에 대한 연구(Maurer, Park & Rothbart, 1995; Park, Ryan & Judd, 1992; Weber & Crocker, 1983), 또한 사회체계이론과 자기범주화 이론에 입각한 내·외 집단 범주화 연구들이 있다. 이 후자의 이론들은,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사람들을 범주화하여 내집단을 상대적으로 높이고자 한다고 본다. 다음, 도식(혹은 고정관념)과 정보처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정관념이 기억, 판단 및 인상형성에 있어서 확인 편파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과 그러한 확인 편파가 일어나도록 하는 조건과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즉, 고정관념은 제한된 인지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mental shortcut)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은 일치정보를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애매한 정보를 일치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기도 한다. 고정관념이 이와같이 쉽고 빠르게 정보처리를 하도록 돕는 기능은 고정관념의 자동적(automatic) 정보처리 기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고정관념은 우리가 의식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자동 과정을 일으켜 생각 속에 가용적으로 됨으로써 우리의 판단 및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argh, 1982; Devine, 1989;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Wyer & Srull, 1981).

그러나 보다 최근에 들어, Fiske(1993, 1998)는 고정관념을 인지과정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부산물로서만 보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입장을 비판하였다. 즉, 사람들은 능동적인 인지처리자로서, 인지 능력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가

높으면 고정관념에 의거한 정보처리를 하지 않고 보다 꼼꼼하게 자료에 근거한 정보처리를 하는 '동기화된 전략가(motivated tactician)'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처리가 유용하기만 하다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처리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편견의 감정적 근원에 대한 최근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에 Jussim, Nelson, Manis와 Soffin(1995)이 한 실증 연구를 통해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신념보다는 감정이 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편견에 있어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실상 편견에 개입된 가치와 관계된 연구들과 이론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미국 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종 갈등과 성편견에 대한 조사 연구들에 근거한 이론들로서,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접근(Sears & Kinder, 1971), 혐오적 인종주의(aversive racism) 접근(Gaertner & Dovidio, 1986) 그리고 양가 감정적 인종주의 접근(Katz & Hass, 1988)들이 그 대표적 접근들이다. 이 이론들은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흑인에 대한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이 쇠퇴한 한편 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편견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상징적 인종주의, 혐오적 인종주의 그리고 양가감정적 인종주의가 그 대표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은밀한 형태의 인종주의는 어렸을 때 획득한 소수인종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미국인의 전통적 개인주의 가치(즉, 자립주의 혹은 근면성 혹은 형평주의)와의 결합이나 혹은 인종평등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의 모순과 갈등에 의거하여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최근들어 몇 연구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집단에 대한 감정과 인지가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Dovidio 등, 1996; Stangor 등, 1991; Stephan 등, 1994). 이 연구들에서는 주로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이 신념보다는 감정적 측면에 보다 의거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편견적 판단이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결정

되는가 아니면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범주의 유형(즉, 남녀집단, 인종집단 혹은 지역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판단의 유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견 연구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편견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로서, 집단간 관계의 맥락에서 범주화(categorization)의 문제로 다룬 연구들과, 사회정체의 문제로 다룬 사회정체 이론과 자기범주화 이론을 논의한다. 아울러 고정관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이 분야의 최근의 연구 동향을 개관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편견의 인지적 근원과 감정적 근원에 대한 연구들과 논쟁을 소개한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즉,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실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조명할 것이다. 이 연구 분야는 대부분의 기존의 편견 연구가 편견의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는 데 반해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따라서 보다 새로운 관심을 요하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존의 편견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수정 및 감소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먼저 편견에 개입된 인지 과정에 대한 이론들과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편견에 개입된 인지적 과정은 범주화과정 및 그 영향과 고정관념이 대인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범주화(categorization)

범주화과정과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고정관념의 정보처리 세부과정에 대한 연구들과 달리 집단간 관계의 맥락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범주화에 관한 이 연구들은 다시 일반 집단범주화의 영향과정에 대한 연구와 내·외집단(ingroup-outgroup) 범주화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범주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각할 때 흔히 그가 속한 범주를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범주들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또한 그에 대한 주요 판단을 하게 된다. 일단 범주화된 대상은 그 범주에 대한 사람들의 선행 지식(즉, 고정관념)에 의하여 왜곡되게 기억되고 판단되기도 한다. 집단범주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타인들을 어떻게 범주로 구분하느냐에 대한 연구들과 그리고 타인들을 집단범주화시켰을 때 이 집단들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사람들이 여러 가능한 집단 범주중 어떠한 집단 범주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가는 그 상황에서 보다 특출해(salient) 지는 범주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수와 소수로 구분되어지는 범주 차원이 비슷한 수로 양분되는 범주차원보다 더 특출해질 것이다. 즉, 한 무리의 사람중 여자가 단 한 사람 있을 때 남녀 범주가 다른 차원보다 더 특출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속한 다른 범주(예를 들어, 대학생)보다 성범주에 의거해 그녀의 특성이 지각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각적으로 특출한 범주(즉, 성, 인종, 나이 등)가 있어 이러한 범주들은 특정 사회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상황 요인외에 한 사회에서 그 특정 역사와 경험에 의해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간주되는 범주들이 있고 이러한 범주들이 타인을 지각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성, 나이, 그리고 출신지역이 중요한 범주들이고 한편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과 성이 중요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집단범주화의 결과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지각자가 범주내(intra-category) 성원들간의 발언을 범주간(inter-category) 성원들간의 발언보다 더 혼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Taylor, Fiske, Eticoff, & Ruderman, 1978).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각할 때 개별화하여 지각하기 보다는 그들이 속한 집단범주에 근거해 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함께 묶어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서로 혼동하고 반면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발언들은 구분하여 기억된다. 이러한 범주 근거 정보처리는 소수 집단에 대해 다수 집단에 대해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Brewer & Harasty, 1996). 즉, 소수집단에 대하여 범주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 동질적인 사람들로 한데 묶어 지각함을 보여 준다.

하나의 상위범주(superordinate category)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하위범주(subcategory)를 발전시키고 있고 이러한 하위범주에 근거해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Brewer, Dull & Lui(1981)는 미국인들이 노인 집단에 대한 하위 범주들(예를 들어, 할머니 유형, 중진 정치가 유형 등)과 그 특징에 대한 도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하위범주가 노인대상들에 대한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최근들어 하위범주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하위범주화가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이다. 즉, 상위범주에 대한 일반적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범주들에 대한 경험이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상위범주에 대한 하위유형화(subtyping)는 그러나 많은 경우 상위범주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보이는 구성원들을 예외로 간주하도록 하여 오히려 상위범주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은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Weber와 Crocker(1983)는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수정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모형 - 적립 모형(bookkeeping model), 전환모형(conversion model) 그리고 하위유형화모형(subtyping model)-을 검토해 보았다. 적립(book-keeping) 모형은 상위범주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성원들에 많이 접할수록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전환(conversion)모형은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 두 개인을 접함으로써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하게 된다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하위유형화(subtyping)모형은 상위범주 고정관념 불일치정보가 한 두 개인에 국한되어 나타나면 하위유형화 되어(즉, 예외화되어) 오히려 상위범주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유지 존속시키게 해 준다는 입

장이다. Weber와 Crocker(1983)는 상위범주(예를 들어, 변호사 등)의 특징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극단적인 한두 성원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여러 명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 불일치 정보에 대한 양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화가 전자의 경우는 그대로 지속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감소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후자의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 상위범주에 대한 하위집단(subgroup)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성원들이 여러 명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적립모형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한편,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에의 노출이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정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이러한 개인을 하위유형화시켜 버리기 때문임을 보여 주고 있어 하위유형화 모형도 지지되었다.

Maur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하위유형(subtype)과 하위집단(subgroup)을 구분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하위유형은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비전형적 집단성원들이지만 일면 고정관념과 부합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직업 여성은 여성의 고정관념적 전형과는 괴리가 있지만 한편 외모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여성의 전형적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위집단은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특성을 가지는 개인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위집단의 특징은 상위집단내에서 서로 매우 비슷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하위집단은 각각 다른 측면에서 고정관념적 특성을 나타내 보인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와 비서는 각각 여자의 고정관념적 하위집단들이다. Maurer 등(1995)에서는 피험자에게 한 집단에 속해 어떤 동일한 특성들을 보이는 16명의 가상의 인물들의 특징들을 제시한 다음, 그들을 되도록 많은 집단으로 구분해 보라고 하거나(즉, “하위집단” 지시) 혹은 상위집단에 전형적인 사람들과 비전형적인 사람들로 구분하라고(즉, “하위유형” 지시) 지시하였다. 그 결과, 하

위유형화는 상위집단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원들을 예외로 간주하도록 하여 상위집단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집단동질성을 유지 지각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하위집단화는 상위집단의 다양성을 지각하도록 하여 상위집단이 덜 고정관념적으로 지각되도록 하였다. 즉, 상위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정관념과 편견 수정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해 주고 있다. 즉, 한 집단의 성원 중 그 집단의 전형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 성원들을 접하게 하고 동시에 그들을 예외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면, 그 집단에 대한 하위집단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상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하위유형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다른 경우에 하위집단화가 일어나는가? Fiske(1998)는 하위집단화는 하위유형화에 비해 사람들의 정보처리 능력과 동기가 어느 정도 높아질 때 일어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집단에 대한 친숙도가 높고 사회정체가 관여될 때 하위집단화가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해 외집단에 대해서보다 하위집단들을 지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Park, Ryan & Judd, 1992). 하위집단화와 하위유형화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정체이론, 자기범주화이론과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고정관념이 대인 정보처리에 미치는 보다 미시적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연구들과는 달리 일군의 유럽의 연구자들은 특히 사회정체이론과 이의 뒤를 이은 자기범주화이론을 중심으로하여, 집단간 관계의 맥락에서 작용하는 내외집단 범주화와 그 영향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Brewer & Brown, 1998). 사회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 Turner, 1979; Tajfel, 1982)은 먼저, 사람들의 정체감을 개인적 정체와 사회정체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 정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특징(즉, “나는 이러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다” 등)에 의거해 가지는 정체감이고, 사회정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정체감이다. 사회정체이론은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로 대상들을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타집단에 비해 높이하고자 한다고 본다. 즉, 사람들의 자아존중은 일부 긍정적 사회정체(즉, 집단으로서의 정체)로부터 이끌어 내어 지는데, 사회정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사회적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따라서 사람들이 내·외집단으로 집단을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여러 정보처리의 특성이 나타나는 인지과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정체를 높이는 동기적 과정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집단갈등을 설명하는 기존의 주요 이론(예를 들어, 현실적 갈등 이론)과 달리, 현실적 갈등이 없이도 내외집단 범주화만으로도 심리적·사회적 경쟁이 일어나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킨다고 보는 특징을 가진다. Tajfel은 이러한 사회정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소집단(minimal group)”의 실험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최소집단이란 구성원간에 아무런 실제 상호작용이 없이 집단 구분만 이루어진 집단을 지칭한다. Tajfel(1969)과 Locksley, Ortiz와 Hepburn(1980)은 이러한 최소집단 실험 상황에서, 즉, 임의의 구분(예를 들어, 제비뽑기에 의한 집단 범주화)만에 의거해서 집단을 구분했을 때에, 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집단의 사람에게 타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할당하였음을 보였다. 즉, 실질적 이득을 위한 경쟁이 없이 집단 구분만으로도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다. Brewer와 Brown(1998)은 이와같은 내집단 편애 현상은 내집단에 대해 보다 좋게 평가하고 보다 큰 보상을 주는 형태가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비하의 형태보다 더욱 보편적이라고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사회정체이론은 또한 집단 행동이나 관계가 단순히 개인 내적인 인지 과정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사회적(macro-social) 맥락에 의해

영향받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실제 집단들의 여러 특징-지위, 권력, 혹은 지위나 권력의 합법성(legitimacy), 안정성 및 이동성-에 따라 긍정적 사회 정체성 추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ogg & Abrams, 1987).

사회정체가 자아존중의 고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사회정체이론을 검토한 연구 결과 이를 지지해 주는 많은 증거들을 얻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이 성공적일 때 더욱 그 집단에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Cialdini, Borden, Thorne, Walker, Freeman & Sloan, 1976). 또한 실험실 상황에서 만들어진 집단이 성공적이고 높은 지위를 가졌을 경우 실패하거나 낮은 지위의 경우보다 사람들이 더 그 집단에 강한 동일시를 보였다(Ellemers, van Knippenberg, de Vries & Wilke, 1988).

그러나 한편, 실생활의 집단에 대한 보다 거시적-사회적(macro-social) 분석에 의하면, 집단의 '지위'란 주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데, 특히 그 지위가 얼마나 합법적이고 안정적이냐에 따라 집단 지위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어 긍정적 사회 정체 추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gg & Abrams, 1987).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 범주가 이동 가능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보다 긍정적 사회정체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지위가 높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집단을 이동(social mobility)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 인종이나 나이의 경우와 같이 이동 불가능한 집단범주의 경우에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사회정체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어진 집단의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의 집단 지위가 합법적이고 또한 안정적인 경우에는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들은 사회적 창조성(social creativity)의 전략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 비교를 통해 사회 정체를 높이고자 한다. 즉, 새로운 차원에서 집단간 비교를 시도한다든지, 집단 비교 차원들에 부과하는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여 자신의 집단이 우세한 특성들에 보다 가치를 부여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외집단과 비교하고자 시도(즉, 하향적 비교)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반면, 주어진 사회 지위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안

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반목, 편견과 갈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위가 낮은 집단 성원들의 경우 자신의 집단에 주어진 지위가 비합법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면 자신의 집단에 더욱 동일시하며 높은 지위의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해진다고(Turner & Brown, 1978).

자아존중감과 내집단편애 혹은 집단동일시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주로 실험실 연구)들은 두 가지 논쟁점을 불러 일으켰다(Brewer & Brown, 1998). 첫째,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내집단편애를 더 강하게 나타낼 것이냐의 문제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낮은 자아존중을 보완하기 위해 내집단 동일시를 강하게 나타내는가의 문제로, 자아존중이 내집단편애 혹은 집단동일시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자아존중이 낮은 사람들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더 강하게 보인다는 증거는 미약했다. 낮은 자아존중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의 사람들보다 내집단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강한 집단동일시를 보였고(Crocker & Major, 1989), 또한 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자아존중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내집단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Taylor & Brown, 1988).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이 집단동일시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집단동일시의 결과 나타나는 하나의 산출물임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자아존중과 사회정체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자아존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먼저, 자아존중을 보다 지속적인 특성(trait) 자아존중과 보다 일시적인 상태(state) 자아존중으로 구분하여 볼 때 관련 연구 결과들이 보다 일관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높은 특성 자아존중을 가지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내집단 편애를 보이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상태 자아존중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보다 강하게 자신의 집단에 대한 편애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아존중의 의미를 개인적 자아존중(personal self-esteem)이 아니라 집합적 자아존중(collective self-esteem)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rocker & Luhtanen 1990; Luhtanen &

Crocker, 1991, 1992). 집합적 자아존중은 개인적 자아존중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속한 집단들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을 지칭한다. 즉, 사회정체가 얼마나 긍정적이나에 따라 집합적 자아존중이 달라진다. Luhtanen과 Crocker(1992)는 사회정체이론에서 자아존중의 의미는 집단자아존중이지 개인적 자아존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전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과 내집단편애의 관계가 일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것(즉, 어떤 경우에는 낮은 자아존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집단편애를 보이고,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아존중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한 내집단 편애를 보였음)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집단자아존중을 측정하지 않고 개인적 자아존중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Luhtanen과 Crocker(1992)는 집단 자아존중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를 만들어 집합적 자아존중을 측정하고자 했는데,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이 집단의 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사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본다고 지각하는가(공적 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 자신이 그 집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가치로운 멤버라고 지각하는가(멤버십 하위척도), 그리고 집단 멤버십이 자신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각하는지를(정체감 하위척도) 측정한다. 이러한 척도로 집단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어떠한 과제에 내집단이 성공하거나 실패하였을 때 내집단 편애를 얼마나 나타내는가를 검토한 결과,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집단자아존중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욱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 자아존중이 위협받았을 때는 내집단편애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Crocker & Luhtanen, 1990).

이러한 논쟁과 연구 결과들은 내집단편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적 자아존중인지 혹은 집단자아존중인지에 대해 모호한 결론만을 내리게 하여, 현재로서는 개인적 자아존중과 집단자아존중이 모두 내집단편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에 없다. 어떠한 경우에 개인적 자아존중이 더욱 중요해 지고 어떠한 다른 상황에서 집단 자아존중이 더욱 중요하게 내집단편애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 연구(Long, Spears & Manstead, 1994)에서 이 두 개념을 통합해서 내집단편애와의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가 한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집단자아존중은 낮을 때 내집단편애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개인적 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회 정체를 보완하기 위해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정체이론의 후속 이론인 자기범주화이론(Oakes, Haslam & Turner, 1994; Turner & Oakes, 1989)은 사회정체이론보다 더욱 인지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범주화과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두 집단 구성원들간의 차이를 집단내 구성원들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는 한(metacontrast 혹은 비교적 부합(comparative fit)이라고 함), 이 대상들을 집단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하게 된다고 본다. 즉, 성, 종족이나 지역 등의 범주가 두 무리의 사람들의 차이를 잘 구분하도록 해 주는 한, 이러한 특정 자기범주화 혹은 타인범주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범주화는 비교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호남 사람이 현재의 맥락에서 다른 호남 사람과 다르게 지각되는 정도가 영남 사람과 다르게 지각되는 정도보다 더 작다면 이 사람은 '호남사람'으로 범주화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는 동일한 호남 사람이 영남사람과 차이가 나는 정도가 일본 사람과 차이가 나는 정도보다 작아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는 '한국사람'으로 범주화될 것이다. 따라서 범주화와 그 효과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자기범주화이론은 이 점에서 미국의 고정관념 연구들을 비판하고 있다. 즉, 미국의 사회인지 연구자들은 범주화가 맥락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상정하여 사회적 맥락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기범주화이론은 또한 범주화가 이러한

비교적 부합의 원리이외에 “규범적 부합(normative fit)”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범주의 특성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를 적용시켜 범주화시킨다. 예를 들어, 호남사람의 특징 혹은 영남사람의 특징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의거한 범주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정체이론과 마찬가지로 자기범주화이론은 사람들의 정체감과 사회 행동을 대인간(interpersonal) 수준과 집단간(intergroup) 수준의 양극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자신들의 사회정체에 의거해서 집단 지각과 행동을 하는지는 비교적 부합 과정과 규범적 부합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자기정체이론은 제안한다. 즉, 집단간 차이가 커지고 집단내 차이 혹은 개인간 차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인으로 범주화하여 사회정체가 부각된다. 반면, 집단내 차이가 커지고 집단간 차이는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개인적 정체감이 보다 부각된다. 일단 사회적 수준으로 자기범주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집단간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지각하고 또한 집단내 성원들의 유사성을 더욱 크게 지각한다(이를 “강조화” accentuation라고 한다). 또한 사람들의 사회정체가 부각되면 비개인화(depersionalization)가 일어나고, 자신을 내집단에 더욱 동일시하고 외집단과 구분하는 자기고정관념화(self-stereotyping)가 일어나 집단간 반목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자기범주화이론은 범주화가 집단간 사람들간의 차이와 집단내 사람들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된다고 보아 범주화가 비교 대상에 따라 또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대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범주화이론은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 혹은 타인들을 구분하여 범주화하도록 하는 상황적(contextual)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체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은 미국의 이론과 연구들과 달리 편견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는 이론으로,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

들 보다 거시적,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외집단 동질성 지각

범주화의 과정과 그 결과 나타나는 내집단 편애 현상과는 별도로 범주화의 결과 나타나는 또하나의 주요 현상으로 외집단 동질성(outgroup homogeneity) 지각 현상(Park & Rothbart, 1982; Park, Ryan & Judd, 1992)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내집단보다는 외집단을 보다 동질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집단 사람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외집단은 동질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 Park와 Rothbart (1982)는 남녀 집단과 동아리 집단 성원들에게 자신의 집단 혹은 외집단 사람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적 특성을 지니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사람들은 내집단 사람들보다 외집단사람들 중에 고정관념적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각하였다. Park, Ryan과 Judd(1992)도 경영학 전공 학생들과 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각각 내집단 사람들과 상대 집단 사람들의 하위집단들의 수와 성원들의 변산성(즉, 다양성)을 추정하게 한 결과, 내집단 사람들에 대해 외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하위집단들을 지각하였으며 또한 더 다양하다고 지각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외집단 동질성 지각 현상의 원인으로 내집단 성원에 대해 외집단성원에 대해서보다 더 친숙하고(Park & Rothbart, 1982) 더 복잡한 인지체계(Linville, 1982)를 가지기 때문에 혹은 내집단에 대해 보다 더 많은 하위집단을 지각하기 때문이라고(Park, Ryan & Judd, 1992) 보았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집단을 더욱 동질적이라고 지각한다. 즉, 소집단 구성원의 경우, 또한 내집단이 외부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Rothgerber, 1997), 그리고 집단정체감에 중요한 판단 차원의 경우에는 내집단을 보다 동질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집단성원들은 공동운명을 지각하여 자신의 내집단 성원들을 서로 비슷한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집단에 더욱 동일

시를 하여 집단의 결속감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집단동질성 지각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체를 보호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2. 고정관념

사람들이 대상을 범주화시키고 나면 그러한 범주에 대한 기존의 지식(즉, 고정관념)에 의하여 그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이 영향받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정관념은 복잡한 정보처리를 빠르고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지름길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고정관념은 대상집단에 대한 기존의 지식으로서, 이 기존의 틀에 의거하여 정보를 단순화시키므로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해 자동화된 사고들을 불러일으키며,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해석을 돕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정관념이 정보처리 과정을 단순화시켜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류와 편파를 자아낸다. 즉, 고정관념은 그것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보처리과정을 편파시킨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 고정관념은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따라서 더 잘 기억하도록 하며, 또한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상인물의 행동을 해석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대상의 행동을 고정관념(즉, 기대)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기대실현효과(혹은 자기이행적 예언 효과)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확인적(self-confirming) 정보처리 편파의 결과 고정관념은 재확인되어 유지·지속·강화되는 것이다. 고정관념이 대인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정관념이 자동적 정보처리를 일으키는 효과와 기억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 편파- 즉, 기존의 고정관념을 재확인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보처리가 일어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고정관념의 이와 같은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지각자의 동기와 기분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받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1) 고정관념의 자동과정(automatic processing)

먼저, 고정관념은 대상집단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으로서 대상에 대한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일으켜 의식적 통제밖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점화(priming)되어 생각 속에 가용적으로(available) 되므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인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Devine(1989)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흑인고정관념(즉, 흑인, 게으른, 음악적인, 가난한, 운동소질이 있는 등) 단어들을 순간노출기(tachistoscope)로 빠르게 제시하였는데(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보았던 이런 단어들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에게는 총 단어의 80%가 흑인고정관념 관련 단어였던 반면,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20%만이 흑인고정관념 관련 단어들이었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한 대상인물에 대한 애매모호하면서 다소 공격적인 행동기술문(예를 들어, Donald가 물건값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상점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혹은 그의 아파트가 다시 칠해질 때까지 월세 지불을 미루는 행동 등)을 제시받고 이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도록 요청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흑인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여 참여자들을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였는데, 흑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는 Modern Racism Scale(McConahay, Hardee & Batts, 1981)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편견을 비반발적(nonreactive)으로 측정하는 척도로 흑인우대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단어들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참여자들보다 제시된 애매모호한 행동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의 이러한 자동적 영향은 흑인에 대해 낮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도 높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 의식적 통제밖에 있는 과정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낮은 편견의 사람들은 높은 편견의 사람들과 달리 흑인 혹은 백인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라(즉, 의식적 과제)고 요

청되었을 경우에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적 사고를 나타내지 않았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고정관념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동과정을 통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편견의 이러한 자동적 영향은 편견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의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편견적 반응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편견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 습득한 소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태도가 의식적 통제밖에 있는 자동과정을 먼저 일으키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 다음 순간에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자동화된 반응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Devine(1989)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과 이러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한 신봉(endorsement)이나 수용은 별개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높은 편견의 사람이나 낮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은 같을 수 있으나, 편견이 낮은 사람은 이를 자신의 사적 신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 혹은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은 사적 신념 혹은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한 신봉과는 분리되어(dissociate) 있다고 본다. 고정관념은 어렸을 때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어 오랜 활성화의 역사를 가지므로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 편견이 낮은 사람에 있어서나 높은 사람에 있어서나 비슷하게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인적 신념 혹은 신봉은 의식적 통제과정에 의해 활성화되므로, 낮은 편견의 사람들은 높은 편견의 사람들과 달리 고정관념의 영향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려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노력을 한다. 따라서 의식적 통제가 불가능해 지는 상황, 즉, 인지수용력이나 생각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고정관념의 자동과정만이 가능해 지므로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Devine(1989)의 편견 모형을 분리모형(dissociation model)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Greenwald 등(1998)도 편견적 태도가 의식밖에 있는 자동과정을 통해 암묵적 연상(im-

plicit association)을 일으키고, 이러한 암묵적 연상이 판단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와 같은 편견의 자동과정을 측정하는 도구로 IAT(implicit association test)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혹은 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대상 집단에 대해 그와 상응하는(compatible) 반응(예를 들어, 부정적 태도대상 집단과 부정적 단어에 대해 왼쪽 단추를 누르도록 함)을 함께 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상응 반응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예를 들어 부정적 태도대상 집단과 긍정적 단어들에 대해 오른쪽 단추를 누르도록 함)에 비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므로, 상응과제의 경우의 반응속도와 비상응과제의 경우의 반응속도의 차이로서 IAT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이 유발하는 암묵적 연상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었다. 즉, IAT 효과는 비상응과제에 대한 반응속도가 상응과제에 대한 반응속도보다 더 느리게 되어 그 차이로써 측정하게 되는 효과인데, 이는 바로 대상 집단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식적 반응 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도를 측정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 한 결과, Devine(1989)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편견에 대한 외현적 측정 도구(즉, modern racism scale)에서 흑인에 대해 낮은 편견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사람도 높은 편견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IAT 효과(즉, 편견적 반응)를 나타내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Devine(1989)이나 Greenwald 등(1998)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연 낮은 편견을 가진 사람과 높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얻은 연구들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Wittenbrink, Judd와 Park(1997)는 Devine(1989)의 연구에서 점화의 조작이 흑인범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흑인과 관련된 고정관념 형용사(즉, 게으른, 가난한 등)들을 제시하였으므로 적대성(hostility)을 점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조작은 편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에게 제시되었으므로 편견이 낮은 사람도 편견이 높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후에 제시된 애

매모호한 행동을 적대적 행동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Wittenbrink 등(1997)은 Devine(1989)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여 이 주제를 다시 검토하였다. 즉, 백인 참여자들에게 흑인 혹은 백인 범주를 점화시키고 나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흑인 고정관념 형용사들과 백인 고정관념 형용사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편견 효과가 나타나 백인 참여자들은 흑인범주가 점화되었을 때는 부정적 단어들에 더욱 빨리 반응하였고 한편 백인범주가 점화되었을 때는 긍정적 단어들에 더욱 빨리 반응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Modern Racism Scale에 의해 측정된 편견의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편견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즉, 고정관념 혹은 편견의 자동 과정도 개인의 편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Lepore와 Brown(1997)은 이와 같이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두 연구를 통합하여, 범주의 점화(즉, Wittenbrink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와 고정관념 내용 자체의 점화(즉, Devine(1989)의 연구에서와 같이)의 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Lepore와 Brown(1997)은 그들의 연구에서 범주(즉, 흑인)를 점화시켰을 때는 높은 편견의 사람들은 편견적 반응(즉, 애매 모호한 행동을 하는 대상에 대한 평가)을 보였지만 낮은 편견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내용을 점화시켰을 때는 편견의 개인차에 따른 편견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일한 정도의 편견적 반응을 보였다. Lepore와 Brown(1997)은 Devine(1989)의 연구에서는 고정관념 내용을 점화시킨 것이고 Wittenbrink 등(1997)은 범주를 점화시켰기 때문에 이 두 연구가 다른 결과를 얻게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Lepore와 Brown(1997)은 이와 같이 집단범주가 점화되었을 때 편견정도의 개인차에 따라 대상인물에 대한 편견적 판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개인적 신념의 내용에 따라 혹은 문화적 고정관념을 신봉하는 정도에 따라, 각 개인이 집단범주에 대해 신봉하는 특징들이 집단범주와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정관념의 내용이 직접 점화되는 경우에는 편견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내용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대상인물에 대한 판단에 있어 편견의 개인차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요약하면,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그 집단에 소속된 대상인물에 대한 인지 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과정이 과연 개인의 신념 혹은 문화적 고정관념을 신봉하고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Devine(1989)의 분리모형은 고정관념적 지식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개인적 신념은 통제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고정관념과 개인적 신념의 개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실상 Devine과 Monteith(1993)는 후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러하고 또 개인적 신념이란 개인적 태도라는 수정된 입장을 보여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구분들이 필요하다. 사회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는 Wegner & Bargh(1998)와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1998)을 참조할 수 있다.

2) 고정관념의 확인편파(confirmation process) 과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정관념은 정보처리시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로서 작용하여 빠르고 쉽게 정보처리를 하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은 빠른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지만 한편 확인편파를 일으킨다. 고정관념이 확인편파를 일으키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기억에 미치는 영향과, 행동에 대한 귀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이행적 예언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고정관념은 많은 경우 고정관념 일치 정보를 비밀치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도록 한다(Cohen, 1981; Fiske, 1993). 예를 들어, Cohen(1981)은 한 여자 대상의 가정 환경과 남편과의 대화 등을 보여 주는 videotape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후에 그들이 본 바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이 여자의 직업

을 사서라고 지시 받았고 다른 반은 여급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이 videotape에서 제시된 정보들의 반은 여급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였고 나머지 반은 사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였다. 참여자들의 기억에 대한 분석 결과 그들은 직업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들을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 일치 정보에 대해 주의가 더 빠르게 기울여지고 또한 더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일부 후속 연구들(Hastie & Kumar, 1979; Hastie, 1980; Srull, 1981)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가 일치정보보다 더 잘 기억되었다. Hastie(1980)는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가 일치 정보보다 더 새롭고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해석을 요하므로 부호화가 더 오랫동안 되고 따라서 다른 정보와의 연합이 보다 강하게 일어나 인출이 잘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Stangor와 McMillan(1992)의 통합(meta) 분석에 의하면, 고정관념이 기억에 미치는 확인편파는 어느 정도 강한 고정관념이나 일상생활의 고정관념(즉, 성, 인종, 나이 등)의 경우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실험실에서 주어진 고정관념이나 새로이 형성된 고정관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를 더 잘 기억하였다. 또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경우에 비해 일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 행동에 대한 정보보다 더 잘 기억되었다(Stern, Marrs, Millar & Cole, 1984). 이것은 사람들이 이 집단에 대해서는 한 개인에 대해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다양한 행동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불일치 정보가 개인의 경우만큼 이상하게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그에 대한 해석이나 부호화 노력이 덜 기울여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들어 Hamilton과 Sherman(1996)이 개인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이 별개의 다른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사람들이 개인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를 할 때는 하나의 전체 혹은 실체(entity)로서 지각하여 정보를 부호화시에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 온라인(on-line) 인상형성을 하게 된다. 반면 집단 대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정보처리가 일어나지 않아 기억에 근거한 인상형성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Hamilton과 Sherman(1996)은 이러한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차이는 개인 대상과 집단 대상에 대한 정보 처리의 차이이기 보다는 대상의 실체성(entitativity)에 따른 정보처리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체성이 아주 높은 집단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려는 온라인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이와는 반대로 실체성이 낮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반적 집단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정보처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McConnell, Sherman과 Hamilton(1997)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정관념은 또한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에 편파된(즉, 고정관념 일치 행동은 비밀치행동에 비해 보다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 행동으로 해석한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Bodenhausen & Wyer, 1985; Crocker, Hannah & Weber, 1983). 예를 들어, Bodenhausen과 Wyer(1985)는 모의법정 판결 상황에서 백인 참여자들로 하여금 WASP(즉, 백인)나 멕시코계 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결하도록 하였다. 이 범죄는 WASP 고정관념적 범죄(즉, 서명을 날조한 사기 범죄)이거나 혹은 멕시코계 미국인 고정관념 일치 범죄(즉, 폭력범죄)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인종 고정관념 일치 범죄 행동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안정적, 지속적인 행동으로 귀인하였고 따라서 더 엄한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정관념이 불일치 행동보다 일치 행동에 대해 더욱 내적·기질적·지속적·안정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확인 편파를 일으키며 따라서 고정관념이 재확인되고 유지 지속되도록 함을 보여 준다.

우리 나라의 지역 고정관념이 대상의 행동에 대한 해석(즉, 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대상 인물에 대한 인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김혜숙(1993)이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영남 혹은 호남 고정관념적 행동(즉, “성급한 행동”과 “주장적 행동”) 각본(script)을 각각 영남사람 혹은 호남사람이 행한 경우를 제시하고, 대상행동에 대한 인과귀인과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 대상의 고향이 영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호남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덜 외적인(즉, 일시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였고, 또한 대상인물을 더욱 어리석고 성급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호남사람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영남사람이 행했을 때보다 더욱 안정된 행동이라고 귀인하였으며 또한 덜 바람직한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동일한 부정적 행동에 대해 대상인물의 고향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지속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일시적 상황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따라서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김혜숙(1993)은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우리 나라의 지역고정관념이 출신지역에 근거한 이러한 편파를 일으키는 과정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이 부딪치게 되는 심리적 폭력 - 심리적·사회적 차별, 부당한 따돌림, 그리고 왜곡되고 편파된 지각 - 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정관념의 확인편파 과정 중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 자기이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일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한 지각자의 고정관념이 대상으로 하여금 실제로 고정관념이 실현되도록 행동하게 하고 또한 대상의 자기 개념을 그에 맞추어 변화되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 조직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가진다면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기대가 그 조직내의 여자들로 하여금(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수동적이고 무능력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그 구성원들의 고정관념은 재확인되고 강화되며 또한 여자들은 수동성과 무능력함을 자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 과정은, 먼저 지각자의 고정관념에 의한 기대가 지각자의 대상에 대한 행동을 변화(위의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은 과제만 부여함)시키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대상은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예를 들어, 일에 대

한 의욕을 상실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짐) 지각자의 고정관념이 확인되고 또한 대상은 이를 자기개념화한다. 한 연구(Word, Zanna & Cooper, 1974)에서 백인 면접자는 흑인 피면접자에 대하여 백인 피면접자에 대해서와는 다르게 행동했고, 그 결과 흑인 피면접자의 질문답변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백인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백인인 경우 흑인인 경우보다 답변할 시간을 더 주었으며 또한 더 끔찍하고 눈맞추기를 하는 등 비언어적 행동에 있어서 더 우호적으로 행동했다. 그 결과 흑인 피면접자는 백인 피면접자에 비해서 실제로 면접에 대한 답변 능력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고정관념이 대상의 자기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상이 불확실한 자기개념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이고 대상이 확실한 자기개념(예를 들어, 나는 외향적이다)을 가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각자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여러 행동을 보여 지각자의 잘못된 신념을 대상의 자기개념에 맞추어 변화시켰다(Swann & Ely, 1984; Swann, 1990). 고정관념이 자기이행적 예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대상이 불확실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고 지각자가 대상에 대한 확실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일군의 연구자들(Jussim, McCauley & Lee, 1995)은 고정관념에 의거한 정보처리 과정이 오류만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정확한 정보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고정관념 연구들은 고정관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신념이고 새로운 정보를 차단시키며 내집단만을 선호하도록 하여 정보처리 과정을 확인편파,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시킨다고 보는데, 실상 고정관념은 많은 경우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관념이 반드시 집단간의 차이를 과장되게 지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개인에 대한 왜곡된 판단만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Fiske(1993, 1998)는 고정관념이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헛된 논쟁에 불과하기 쉽다고 반박하는데, 이것은 우선 “정확성”의 기준이 도무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고정관념적 특성의 정확성의

기준으로 자기보고나 “객관적 측정”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삼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모두 오류의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Stangor(1995)는 고정관념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는 성급하고 미성숙한 논쟁에 지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실제 집단간 차이에 대한 지식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설사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평균일 뿐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의 대상인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고정관념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가 주는 이점은 잘해야 한정된 것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3) 착각적 상관(illusory correlation)

한 사회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Hamilton과 그의 동료들(Hamilton & Gifford, 1976; Hamilton, Dugan & Troiler, 1985)은 “착각적 상관”과정에 의해 일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소수집단과 부정적 특성이 둘다 특출한(distinctive) 정보들이므로 이와같은 특출한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예를 들어, 흑인이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경우)이 매우 특출해져서 보다 더 주의를 끌고 기억되어 그 결과 다른 사건들의 짝(예를 들어, 흑인이 긍정적 행동을 하는 일화)에 대해서보다 그 빈도가 더욱 과잉 지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착각적 상관(즉, 두 사건간의 상관을 과잉 지각하는 것)이라 한다. Hamilton과 Gifford(1976)는 이러한 착각적 상관의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가상적 두 집단(소수 집단과 다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보를 주어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집단 성원들에 의해 행해진 정보들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이때 집단 성원의 수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의 수를 다수 혹은 소수로 변화시켰는데, 각 집단과 행동의 긍정성간에는 상관이 없도록 자극 자료를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두 사건(즉, 소수 혹은 다수집단과 행동의 긍정성)간에는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에 대해 소수 행동의 수를 과잉 추정하

였다. Hamilton 등(1985)은 또한 이와같은 착각적 상관의 과정은 사람들이 집단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호화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인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 아님을 보였다.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특출성에 근거된 착각적 상관이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 주었다(Fiske & Taylor, 1994에 개관되어 있음). 그러나 한편 이러한 착각적 상관은 주어지는 정보와 자신과의 관련성(예를 들어, 다수 혹은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핵보유에 대한 반대 태도를 표명하는 경우)에 의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즉, 착각적 상관은 자신이 찬성하는 정보가 소수 집단에서 표명되는 경우에만 나타났다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는 정보가 소수 집단에 의해 표명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Spears, Van der Plight & Eiser, 1986). 후자의 경우 소수 집단이 표명하는 태도가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므로 소수집단의 높은 특출성이 반대되는 태도의 낮은 특출성 효과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착각적 상관이 나타나도록 하는 또다른 요인은 두 사상간의 연합적 의미이다. 즉,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해 그 의미가 잘 연합되어 있는 두 사상의 짝(예를 들어, 스튜어디스-상냥한 행동, 도서관원-꼼꼼한 행동 등)은 보다 쉽게 주의되며 따라서 더 잘 기억되고 그 빈도가 과잉추정된다는 것이다(Hamilton & Rose, 1980; McArthur & Friedman, 1980). 이와같은 연합적 의미에 의한 착각적 상관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유지 지속시키는 한 기제가 된다.

특출성에 근거한 착각적 상관에 대한 두가지 대안적 해석이 최근 제기되었다(Fiedler, 1991; McGarty, Haslam, Turner & Oakes, 1993). Fiedler(1991)는 착각적 상관이 Hamilton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의 특출성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통계적 현상인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였다. 즉, 착각적 상관의 실험 상황에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해 많은 수의 정보가 제시되므로(예를 들어, 다수집단의 경우 26개의 행동 정보가 제시되고,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13개의 행동 정보가 제시되었

다), 정보를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손실은 소수 집단의 경우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큰 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에 의해 더 큰 표본이 제시되는 다수 집단에 대해서 소수 집단에 대해서보다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비율(예를 들어, 9 : 4)을 더 잘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손실의 결과 판단시에 확률(즉,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확률) 추정이 필연적으로 회귀적으로 되는데, 이러한 회귀 효과는 정보 손실이 더 큰 소수 집단에 대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수 집단에 대해서 다수 집단에 대해서보다 소수 정보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추정한다는 것이다.

공유된 특출성에 근거된 착각적 상관 현상에 대한 또다른 설명은 자기범주화 이론에서 제기되었다. 이 이론은 착각적 상관 현상이 공유된 특출성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의미를 구분해서 지각하고자 하고 따라서 다수 집단을 소수집단과 구분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McGarty, Haslam, Turner & Oakes, 1993; Oakes, Haslam & Turner, 1994). 즉, 사람들은 두 집단이 주어지면 집단간 차이를 극대화하고 집단내 차이는 극소화하여 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다수 집단에 대해 더 많은 긍정적 속성을 지각하고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속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McGarty 등(1993)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 A, B 두 집단이 있는데 A집단의 성원이 B집단의 성원의 두배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참여자들이 A집단을 B집단에 대해서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Hamilton과 그 동료들이 주장한 것처럼 착각적 상관이 부호화동안에 공유된 특출성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두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착각적 상관 현상은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였고 정보의 공유된 특출

성이 분명히 하나의 기제가 된다 할 수 있다. 어느 기제가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설명에서 제시하는 과정들을 대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들을 포함시키는 후속 연구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4) 동기가 고정관념적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최근들어 Fiske(1993, 1998)는 기존의 사회인지 분야에서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사람들이 제한된 인지수용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결과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로 보는 입장, 즉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적 지름길(cognitive shortcut) 입장을 비판하였다. Fiske는 고정관념적 처리 결과 흔히 나타나는 확인 편파나 오류 등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라 능동적인 정보처리자의 동기에 따라 영향받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인지적 지름길을 사용하지만 또한 필요하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처리를 하기도 하는 ‘동기화된 전략가(motivated tactician)’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오류나 확인편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처리에 있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인지적 전략으로 Kruglanski(1989, 1990)는 인지적 폐쇄(cognitive closure) 동기를 들고 있다. 인지적 폐쇄 동기는 개인차로서 변화되거나 혹은 상황적 압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동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꼼꼼한 정보처리나 새로운 정보에 보다 개방적인 정보 처리보다는 고정관념 등과 같은 기존의 지식에 의거한 빠른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Fiske와 Neuberg(1990)와 Stangor와 McMillan(1992)은 특정 상황에서는 고정관념 근거(schema-based) 정보처리보다는 자료 근거(data-based) 정보처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를 Fiske(1993)가 개관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사회정보 처리에 대한 사람들의 동기가 높고(예를 들어, 작업파트너의 경우와 같이 결과의존성이 높을 때 혹은 판단에 대한 책임이 커질 때) 또한 그러한 꼼꼼한 정보처리가 가능해 질 때(예를 들어,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방해과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의거한 정보처리보다는 행동정

보 자체에 대한 꼼꼼한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울한 사람의 경우에도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싶지 않은 동기가 높아지므로 보다 꼼꼼한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고정관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ske(1998)는 대인 정보처리 상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로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동기뿐만 아니라 소속(belonging)의 동기, 통제(controlling)의 동기, 자기높이기(self-enhancing)의 동기, 그리고 신뢰의 동기들이 있다고 하였다. Fiske(1998)는 또한 이러한 동기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처리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한편 상황에 따라 고정관념에 의거한 확인편파를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여 이와같은 동기의 영향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속의 동기는 소속되고자 하는 집단의 규범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추키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정보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통제나 권력 유지의 동기 혹은 질서나 예측가능성의 추구 등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결단력있는 결정 등에 대한 요구를 높이므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울증의 사람이나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을 가진 사람들(그러나 가시적이지 않은 낙인의 경우에 한해서)과 같이 통제력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자료 자체에 근거한 정보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요약하면, 고정관념은 의식적 통제밖에서 자동적으로 점화되어 대상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용화된 고정관념은 그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보처리과정이 편파되도록 한다. 그러나 지각자가 정확한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고 또한 꼼꼼한 정보처리의 능력도 갖추고 있을 때는 고정관념에 의거한 정보처리보다는 대상인물의 실제 행동에 의거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꼼꼼한 정보처리에 대한 지각자의 동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고정관념의 확인적 정보처리를 줄이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능동적 정보처

리자로서 그것을 원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다고 해도 이러한 동기의 효과는 의식적 통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자동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Fiske, 1998). 또한, 어떤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억제되고 통제되면 후에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의 생각속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가용적으로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억제후 반동 효과(postsuppression rebound effect)가 나타나기도 한다(Macrae, Bodenhausen, Milne & Jetten, 1994; Wegner & Erber, 199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고정관념을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반드시 고정관념의 영향을 감소시키지는 않음을 일면 지적해 준다.

5) 기분이 고정관념적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기분(mood)이 고정관념적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한 연구들이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Bodenhausen, 1993). Bodenhausen(1993)은 기분이 대인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기분이 각성과 인지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분은 각성(arousal)을 일으켜 인지수용력을 감소시키거나 인지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정관념이 정보처리를 도와주는 heuristic으로 사용되어 그 영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기분과 분노, 공포, 불안 등의 부정적 기분은 각성을 증가시켜 인지수용력을 저하시키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heuristic으로서의 고정관념에 더욱 의존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슬픔의 기분은 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고정관념적 정보처리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Bodenhausen, Sheppard & Kramer, 1994)에서 분노는 고정관념의 영향을 증가시켰으나 슬픔은 그렇지 않았다.

한편, 서로 다른 기분은 서로 다른 인지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Schwarz, 1990), 행복과 같은 긍정적

기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일이 잘 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를 하는 데 신경을 써서 행복한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도록 동기화시킴으로써 heuristic 처리 과정이 일어나도록 한다. 반면, 부정적 기분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기분에서 벗어나도록 동기화시켜, 더 이상의 실패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

기분이 동기에 영향을 미쳐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이 어떠한 정보처리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Forgas & Fiedler, 1996). 즉, heuristic처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처리, 혹은 체계적이지만 일정한 방향으로(즉, 편파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동기화된 처리 과정중 어떠한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Forgas와 Fiedler (1996)는 집단 멤버십의 개인적 관련성이 낮을 때는 처리 노력이 감소되어 heuristic 처리가 일어나는데, 긍정적 기분이 이러한 과정을 더욱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반응(즉, 최소집단상황에서 보상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이 더욱 증가하였다. 즉, 긍정적 기분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인지수용력이 줄어 들어 집단 범주와 같은 heuristic에 더욱 의존하므로 외집단 차별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때는 보다 체계적인 처리전략이 선택되는데, 부정적 기분(즉, 여기서는 슬픔)이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고자 동기화시켜 외집단에 비해 자신의 집단을 상대적으로 높이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에 부응하는 동기화된 체계적 처리(즉, 관련된 연상과 해석을 증가시키는 처리과정)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외집단을 더욱 차별하도록 만들었다.

이와같이 기분은 이미 형성된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거한 정보처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한편 기분은 고정관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troessner, Hamilton & Mackie, 1992). Stroessner 등(199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즉, 슬픔)이 모두 특출성 근거 착각적 상관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즉, 특출성 근거 착각적 상관이

형성되려면 두 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분이 각성을 높이고 그 결과 주의과정을 무너뜨려, 집단 고정관념의 형성을 이루는 과정 중의 하나인 착각적 상관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3. 편견의 감정적 근원과 인지적 근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편견의 감정적 근원에 대한 최근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최근에 Jussim, Nelson, Manis와 Soffin(1995)이 한 실증 연구를 통해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신념보다는 감정이 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에게 아동학대자, 록음악가, 동성연애자 혹은 이성연애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고, 이러한 판단이 각 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신념(즉, 고정관념)에 의해 보다 영향받아 나타난 것인지 혹은 각 집단에 대한 감정(즉, 호감도)에 의해 보다 영향받은 것인지를 구조방정식 분석에 의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집단에 소속된 어느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판단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념보다는 호감도에 의해 보다 영향받았다.

편견에 있어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실상 편견에 개입된 가치와 관계된 연구들과 이론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미국 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종 갈등과 성편견에 대한 조사 연구들에 근거한 이론들로서,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접근(Sears & Kinder, 1971), 혐오적 인종주의(aversive racism) 접근(Gaertner & Dovidio, 1986)과 양가감정적 인종주의(Katz & Hass, 1988)가 그 대표적 접근들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흑인에 대한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적대감이 쇠퇴한 한편 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편견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상징적 인종주의, 혐오적 인종주의 그리고 양가감정적 인종주의가 그 대표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먼저, 상징적 인종주의 접근은 현재 미국인들의 인종(흑인, 아시아인 및 멕시코) 편견은 “강

요된 *busing*(흑백 학생이 통합된 학교 버스)”,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 우대정책), “역차별” 혹은 “복지” 등과 같은 인종 상징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상징적 인종주의는 백인들이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어렸을 때 획득한 부정적 감정과, 이들에 대한 여러 혜택이 미국인의 전통적 개인주의적 가치(즉, 자립주의, 근면성의 가치 혹은 노력과 보상의 형평(*equity*))에 대한 가치 등)에 위배된다는 신념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즉, 상징적 인종주의자들은 소수 인종들이 부당하게 필요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며 소수 인종의 정치 후보들에 반대하는 투표행동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 인종주의는 어릴 적에 이미 학습한, 소수인종에 대한 부정적 감정(즉, 혐오나 불편 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염오적 인종주의는 많은 백인들이 인종평등주의적 가치를 지지하지만 한편 흑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나타나게 되는 편견의 형태이다. 염오적 인종주의자들은 소수인종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직면하게 될 때 염오적 감정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소수인종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게 된다. 이들은 인종평등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표방하고자 하여 드러내 놓고 차별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적당한 정당화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하게, 양가감정적 인종주의는 많은 백인들이 두가지 가치-인종평등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소수 집단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의 양극으로 극화되어 그 변산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보다 은밀한 편견의 근원이 되는 부정적 감정은 적대감이나 호전성이 아니라 자신의 양가감정적 태도에 의해 가지게 되는 불편감이나 혐오 혹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Pettigrew와 Meertens (1995)는 이러한 은밀한 편견의 특징은 맹목적 편견

에서와는 달리 소수 집단에 대한 강한 위협이나 거부·분노의 감정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감정의 부족임을 보였다.

최근들어 몇 연구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편견적 태도나 차별적 행동에 미치는, 집단에 대한 감정과 인지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Stangor 등(1991)에서는 미국인들(주로 백인들)이 9개의 집단(즉, 미국인, 백인, 아시아인, 유대인, 흑인, 멕시코인, 러시아인, 아랍인 및 동성애자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즉, 각 집단 사람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가 각 집단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즉, 3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성상에 평가하도록 함)의 호의성보다는 감정(희망적인, 자랑할만한, 존경할만한, 분노의, 두려운, 혐오스러운 등의 10개의 감정 평정목록(*checklist*) 상에서의 평가)의 호의성에 의해 더 잘 예언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Stephan 등(1994)의 연구에서도 미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이라크인들에 대한 미국인과 러시아인들의 감정평가(각 나라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평가함)가 고정관념(즉, 각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를 평정함)보다는 각 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적 특성이 얼마나 긍정적인지에 대한 평가에 의해 더 잘 예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Dovidio 등(1996)은 고정관념보다 감정이 차별적 행동을 더 잘 예언해 줄을 지적하였다. Stangor 등(1991)은 이와같이 편견적 태도가 고정관념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잘 예언될 수 있는 이유는 집단에 대한 감정은 흔히 그 집단에 속한 사람과의 직접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고정관념은 보다 간접적인 방식(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다)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많은 경우 고정관념은 차별 행동에 대한 정당화로 사후에 발전되는 것이므로 편견적 태도에 대해 감정만큼 강한 예언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관련 학계에서 고정관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당해 왔던 감정적 측면이 편견적 반응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편견

적 판단이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보다 결정되는가 아니면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범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그 집단 범주에 대한 강한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집단 범주가 지각자의 집단과 대립적 관계를 가져왔는가 혹은 그 집단이 다소 친숙하지 않은 집단이어서 별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인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종족 편견이나 우리나라의 지역 편견은 강한 감정에 근거한 갈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새로이 형성된 집단간 편견이나 남녀 편견의 경우는 감정보다는 집단에 대한 인지(즉, 고정관념)에 근거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요구되는 판단의 유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혹은 여성의 채용에 관한 판단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판단이냐에 따라 이 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보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감정적 측면이 보다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김해숙(준비중)은 미국의 인종 편견과 우리나라의 지역 편견이 각 인종 혹은 지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고정관념에 의한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백인 혹은 히스패닉인(각각 이름으로

조작함)의 공격적 행동(이는 히스패닉의 고정관념적 특성임)을 참여자들이 읽은 다음 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인지, 지적인지, 좋아할 만한지 혹은 앞으로 얼마나 공격적일지를 평가하였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백인과 히스패닉인이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정도를 평가(즉, 고정관념 평가)하고 또한 백인과 히스패닉인 일반에 대한 호감도를 평정하였다. 우리나라 지역편견에 대해서도 비슷한 자료를 얻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지역 편견적 판단(즉, 동일한 주장적 행동을 한 호남사람이나 영남사람이 행한 경우 충청사람이 행한 경우보다 더 주장적이라고 판단함)이 지역인에 대한 고정관념(즉, 호남인 혹은 영남인은 주장적이다 등)에 근거한 것인가 혹은 지역인에 대한 감정이나 호감도에 근거한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자료에 대해, 먼저 대상인물에 대한 편견적 평가가 얻어졌는가를 검토한 결과 인종에 대한 분석은 유의미한 편견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영남사람이나 호남사람이 충청사람보다 더 주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편견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행동을 대상인물의 출신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 개인에 대한 편견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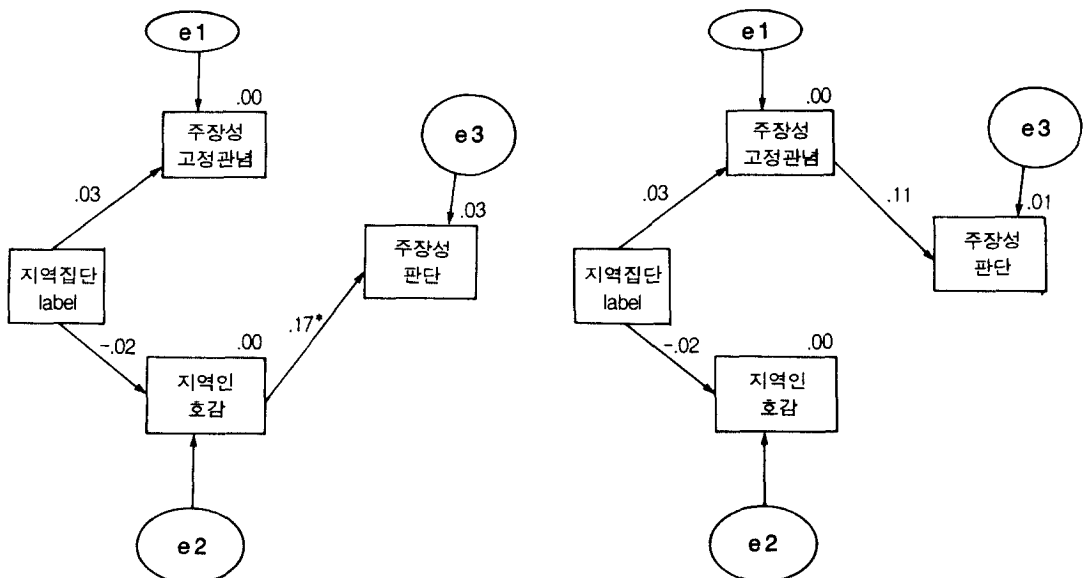


그림 1. 지역고정관념과 지역인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가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집단에 대한 감정(즉, 호감도)에 보다 의거한 것인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한 개인에 대한 이러한 지역편견적 태도는 지역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호감도에 보다 근거한 것이라는 자료를 얻었다(그림 1 참조).

이와같은 편견적 판단의 근원을 밝히는 연구는 편견의 근원에 따라 다른 편견감소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즉, 편견이 집단에 대한 감정에 근거한 경우라면 접촉증가나 대리 친구(vicarious friendship or extended contact) 혹은 감정변화를 목적으로 한 재학습(예를 들어, 고전적 조건형성 등의 과정을 통한)이나 감정이입 과정을 통한 태도변화의 시도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에 대해서는 고정관념 불일치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는 대상 집단 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한다든지 하위집단화시키는 방법들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편견이 보다 감정에 근거하고 어떠한 다른 경우에 편견 판단이 보다 인지에 기초하는지를 밝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과 편견지각

이제까지 범주화와 고정관념, 그리고 감정이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정이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바로 사회적 차별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편견의 감정은 또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이하고 중요한 심리적 과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측면, 즉, 한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찍힘의 경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상 Allport(1954)나 Goffman(1963)에 의해 연구되었던 고전적 주제인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Crocker, Major & Steele, 1998). 한 사회에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

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다수에 의해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되고 인식되는 사회정체(social identity)를 가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은 문화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문명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 장애인, 동성애자, 유색인종, 비만의 사람들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두가지 차원에서 변화된다: 가시성과 통제가능성(Crocker 등, 1998). 가시성은 사회적 낙인이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경우이나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은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가시적인 경우(예를 들어, 장애인)에는 지각자들은 이를 중심으로 이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를 하며 또한 낙인의 대상도 자신에 대한 이러한 편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한편,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낙인의 대상은 자신의 낙인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정하고 낙인이 드러날 것에 대해 걱정하는 등의 심리과정에 매일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또한 그 통제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통제가능하다고 지각되는 낙인(예를 들어, 비만)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인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또한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낙인의 대상은 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행동을 할 것이지만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에는 그 낙인을 상쇄시키고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여러 노력-예를 들어, 다른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사회의 편견에 대항하는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등-을 기울인다.

한 사회에서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정체에 대해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사회정체가 필연적으로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 자아존중감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주장(Cooley, 1956)이 있으나 실상 최근의 자료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Crocker 등, 1998). 즉, 사회적 낙인을 가지는 사람들(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낮게 보고 있다고 인식하지만(즉, 공적 집단자아존중), 스스로는 자신의 집단

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즉, 사적 집단자아존중; Crocker, Luthanen, Blaine & Broadnax, 1994; Turner & Brown, 1978). 이것은 이들이 자신의 집단에 부여된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고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전략(예를 들어,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편견으로 귀인하거나, 편견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집단의 우수성을 지각하거나 함)을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한 자아존중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그 사회의 특징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와같이 자신이 고정관념적으로 취급되고 또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여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위협감은 특히 자신들의 수행이 능력과 관계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에 이들의 수행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흑인 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검사 점수의 원래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어떤 검사가 지적 능력과 관련된 검사라고 지시된 상황에서는 백인 학생들보다도 더 못한 수행을 했으나 능력과 관계없다는 지시의 상황에서는 백인만큼 수행을 잘 했다(Steele & Aronson, 1995).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중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들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 귀인을 애매하게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신의 능력 부족때문으로 귀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편 편견에 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공이나 긍정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능력덕분으로 귀인할 수도 있지만 한편 남들의 동정이나 지나친 호의 혹은 다수인종 스스로의 편견에 대한 방어때문으로 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귀인의 애매모호성은 자아존중을 위협하기도 한다(Crocker & Major, 1989). 예를 들어, 긍정적 수행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단정체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진 것(예를 들어, 고용할당제)이라고 귀인하면 그러한 긍정적 수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마

찬가지로 긍정적 수행 결과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자신의 집단정체에 의한 혜택때문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자아존중이 떨어 졌다. 한편 부정적 수행 결과에 대해 확실히 편견때문인 것으로 귀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아존중이 보호되었다(Crocker & Major, 1989). 그러나 기대와 달리 소수집단 사람들은 아주 확실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피드백(feedback)을 편견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지 않았다(Ruggiero & Taylor, 1995, 1997). 한편, 부정적 결과를 평가자의 차별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면 수행 자아존중은 보호되지만 사회적 자아존중은 저하되고 반면 동일한 결과를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함으로써 수행 자아존중은 저하되지만 사회적 자아존중과 지각된 통제감은 유지될 수 있었다(Ruggiero & Taylor, 1997). 이러한 이유로(즉, 사회적 자아존중과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집단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피드백을 편견으로 귀인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인의 애매모호성은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판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인지수용력을 소모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능력 부족으로 낙인된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그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적 기대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나 장(setting)에서 도피하고자 하거나 혹은 반동일시(dis-identification)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수 인종이나 여성들은 학교라는 장에서 자신들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학교에 대해 반동일시를 하게 되거나 혹은 이탈하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러한 반동일시나 이탈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수행을 낮추도록 하여 더욱 부적응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한다.

한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예를 들어, 여성, 흑인, 히스패닉 등)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다룬 연구들이 최근에 수행되고 있다. Inman과 Baron(1996)은 사람들이 차별 상황에 대한 원형(prototype)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

라 특정 상황을 더욱 차별 상황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남자 가해자가 여자 희생자를 대상으로 편견적 행위로 의심될만한 행위를 한 경우나 백인 가해자가 흑인희생자를 대상으로 행동한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나 동일 인종끼리 혹은 동일 성끼리 동일한 행동을 행한 경우에 대해서보다 그 행위를 더욱 편견적 행위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편견 행위에 대한 지각은 여성과 흑인 참여자가 더욱 강하게 지각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Crocker와 Major(1989)와 Quinton과 Major(1997)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는가를 검토하였다. Quinton과 Major(1997)는 집단정체감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부당한(unjust) 평가 상황(즉, 평가자가 원래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서 여자들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또한 그러한 상대의 행동에 대해 차별행동이라고 귀인함으로써 귀인자의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Crocker와 Major(1989)도 평가자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보다 여자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평가가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귀인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자아존중은 보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수 집단 사람들(즉, 여자나 흑인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 매우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차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Ruggiero & Taylor, 1995, 1997). 예를 들어, Ruggiero와 Taylor(1995, 1997)는 여자, 흑인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은 남자 혹은 백인 평가자들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100%의 평가자들이 여자 혹은 소수인종에 대해 편견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만 자신의 수행을 차별로 귀인하였다. 그들은 평가자들의 75%이하가 편견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부정적 평가를 자신의 수행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별받는 대상이라고 지각함으로써 갖게 되는 통제감의 상실이나

사회적 자아존중의 저하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은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자신의 집단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사실이다(Taylor, Wright & Porter, 1994). 자신에 대한 차별 지각과 자신의 집단에 대한 차별 지각에 있어서 이와같은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기자신이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여 자신의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통제감을 유지시키려 하지만, 한편 그럼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즉, 차별)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단 동료에 대한 사회의 차별을 인정하고 부각시킴으로써 다수 집단 사람들의 편견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편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평가나 결과를 차별에 의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이와같이 다수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평가를 차별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현상은 단지 공적인 귀인 상황(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귀인의 내용을 아는 경우)에서만 나타나고 사적인 귀인 상황에서는 차별로 귀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실패를 차별에 의한 것으로 공적으로 귀인하는 것은 남들에게 책임회피를 하는 사람이나 모난 사람으로 간주되도록 한단든지 혹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일이 되므로 공적인 귀인 상황에서는 차별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사회적 낙인 심리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대상을 고정관념화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기존의 편견 연구들과 달리,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귀인하게 되고 그 결과 자아존중과 집단자아존중 혹은 적응에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되는가를 밝히는, 관련 연구 분야

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연구들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5. 편견 감소 방안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편견 감소에 대한 심리학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능한 한 편견의 인지적 측면을 수정하고자 하는 방안들과 감정적 근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안들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어느 한 방안(예를 들어, 접촉 효과)은 이러한 두 측면에 대한 변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또한 한 사회의 편견을 변화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방안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편견의 인지적 측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로 사회정체이론, 자기범주화이론, 하위범주화 연구들에 의한 방안, 고정관념 불일치정보에의 노출, 보다 정확한 정보처리와 탈고정관념적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 그리고 역고정관념의 활성화 방안(나은영, 1997), 혹은 상위범주의 활성화 방안들을 검토한다. 또한 편견의 보다 감정적 측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접촉이론, 학습과 사회화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감정이입 방법들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Devine과 Monteith(1993)가 제안한, 편견 반응의 통제과정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편견수정을 위한 이러한 여러 방안들을 통틀어 중요해지는 기본적 요소로서, 탈편견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규범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정체이론과 자기범주화 이론에서는 편견의 근원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의 범주화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집단 구분을 재범주화(recategorization)시키거나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시킴으로서 내집단 편애를 줄일 수 있다. Gaertner, Mann, Dovidio, Murrell과 Pomare(1989, 1990)는 이전의 두 집단 사람들을 새로이 한 집단으로 재범주화시키거나 혹은 개인으로 탈범주화시켰을 때, 이전의 내집단에 대한 편애와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감소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범주화(예를 들어, 지역 집단)로 인해 야기되는 편견 반응은 보다 큰 상위범주(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재범주화시킴으로써 혹은 한 집단으로서 새로운 사회정체를 갖도록 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집단범주의 차원들이 교차(cross-categorization)되도록 함으로써 외집단차별이 감소될 수 있다(Deschamps & Doise, 1978; Hewstone, Islam & Judd, 1993). 예를들어, 김철수는 김영호와는 달리 영남 출신이지만 한편 둘은 같은 대학 출신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차원에서는 외집단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내집단으로 되는 것이 대상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동질적인 집단범주의 차원을 부각시키는 것이 내집단편애와 외집단차별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과 특성을 보이는 외집단 성원을 접하는 경험이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하나의 정보나 행동은 흔히 외부 귀인되어 일시적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고정관념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Crocker, Hannah & Weber, 1983). 그러므로 불일치정보에의 접촉이 고정관념을 수정하도록 하는 데에는 매우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중국에 가서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고정관념 내용 자체를 수정한다기 보다는 그 집단의 다양성을 지각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Brewer & Miller, 1988). Park 등(1992), Maurer 등(1995) 그리고 Weber와 Crocker(1983)는 한 집단에 대한 하위집단화(subgrouping) - 즉, 이 집단이 동질적인 한 집단이라기 보다는 여러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 - 이 집단 다양성을 지각하도록 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소수의 집단성원들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불일치 성원들을 하위유형화(subtyping)시켜 상위범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대로 지속되도록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정관념 불일치 특성을 보이는 보다 많은 수의 외집단 성원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수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불일치 특성을 보이는 성원들이 그 집단의 전형적 성원이자 예외적 구성원이 아니라고 지각하여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러한 경험이 그 집단 전체로 일반화될 수 있다(Rothbart & John, 1985). 또한 이때 집단 범주가 특출해야만 한 개인에 대한 불일치 정보에의 경험이 그 집단범주에 일반화될 수 있다.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가 무시되거나 왜곡 해석되거나 하지 않고 자료 그대로 받아들여 지도록 하는 데에는,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지각자의 높은 동기가 도움이 된다(Fiske, 1993, 1998).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를 할 때 집단 범주에 의거하지 않고 대상의 행동 자체를 근거로 삼아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는 데에는 그 사회의 규범이 탈고정관념과 탈편견 지향적일 것이 중요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편견반응이 고정관념적 사고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점화(priming)되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면, 역고정관념적 사고의 점화가 편견 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다. 나은영(1997)은 긍정적 역고정관념(예를 들어, 여자가 이삿짐을 나른다)의 암묵적(implicit)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 인물(예: 주장적 여자)에 대한 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었음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역고정관념 혹은 고정관념적 사고에 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역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편견적 판단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상위범주(예: 우리나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위범주(예: 영남 혹은 호남, 북한 혹은 남한)에 대한 활성화에 비해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반응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점화에 의해 상위범주가 하위범주보다 특출해 지므로 상위범주에 의거한 사회정체가 부각되어 하위범주 구분(예를 들어, 지역 집단)에 의거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있고도 중요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편견은 많은 경우 고정관념과

같은 신념적 요소에 의해서보다는 대상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감정에 의해 영향받는다.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감정은 어렸을 때 이미 습득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탈편견적 태도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재학습이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학습에는 학습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적용시켜, 교과서나 대중매체를 통해 소수집단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학습하게 하고 또한 소수집단과 친구가 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들이 있다.

Cook(1984)이 제시한 외집단에 대한 접촉 증가 방안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재범주화를 일으켜 편견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 결과 외집단과의 접촉의 효과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 즉,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접촉을 하고 또한 그 사회의 규범이 평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만 비로소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접촉 가설을 확대하고자 시도한 한 최근 연구(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는 대리 접촉(즉, 내집단의 성원이 외집단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관찰함)의 경험이 편견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실험실에서 Sherif의 Robber's 동굴 실험(1961)을 재현하여, 내외집단으로 경쟁하게 한 다음에 외집단에 대한 대리접촉의 경험을 하도록 하였는데(연구3), 그 결과 내집단 성원이 외집단 성원과 긍정적 접촉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리접촉은 직접 접촉과 달리 외집단성원들과의 접촉이 일 수 있는 불편감과 불안을 겪지 않고도 외집단 성원을 자기의 개념안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확대된 접촉 효과(extended contact effect)가 과연 실생활에 존재하는 강한 편견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낙인찍힌 대상(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나

노숙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그 대상이 속한 집단 전체에 일반화되어 그 집단에 대한 감정이 항상 될 수 있음을 한 연구(Batson, Polycarpou, Harmon-Jones, Imhoff, Mitchener, Bednar, Klein & Highberger, 1997)가 밝히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외집단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한 편견 감소 방법은, 불일치정보를 제시하여 편견 수정을 시도하는 인지적 방법이 자칫 하위유형화(즉, 예외화) 효과를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설득메시지를 통한 감정이입을 일으켜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시도한 유주란·김혜숙(1998)의 연구에서도 감정이입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화를 통해 특정 지역 집단 사람이 겪은 고통(예를 들어, 출신지역 때문에 결혼이 곤란하다)을 지적하는 감정이입적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감정이입적 메시지가 내집단 설득자에 의해 전달될 때 효과적이었다. 연구자들은 감정의 변화는 내집단에 의해 시도될 때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Devine과 Monteith(1993)는 편견의 과정이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렸을 때의 학습 등으로 인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자동과정과 이러한 고정관념과 감정을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과정이라고 보았다. 편견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부정적 고정관념과 감정의 자동활성화는 일어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반응이 의식되면 이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제 과정을 인식시키고 강화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편견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은밀한 형태의 편견들은 백인들이 가지는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가감정이나 개인주의적인 가치와 평등주의적인 가치사이의 갈등 혹은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평등주의적 가치간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같은 자신의 평

등주의적 가치와 편견반응 사이의 괴리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평등주의적 가치를 일깨워 주어 이에 맞추어 소수집단에 대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Monteith, Zuwerink & Devine, 1994). 물론 이러한 통제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려면 이에 대한 동기와 시간 그리고 인지 수용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Mackie와 Smith(1998)는 편견 감소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평등 선호 사회규범 형성의 중요성에 심리학자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상 한 사회내에서 중요해 지는 집단범주는 그 사회의 규범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또한 소수집단의 특성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신념이 규범적 지식으로 어린이들에게 전수된다. 그리고 소수집단에 대한 편파된 신념이나 편견적 태도의 표현이 그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허용되는가의 규범에 의해, 이러한 반응이 그 구성원들에 학습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보다 개인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사회규범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남녀 고정관념을 규범적 정보(즉, 내집단 성원들이 남녀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적일 수 있었음을 보여 준 이진환(1986)의 연구가 규범의 역할과 중요성을 일면 보여 준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집단 성원과의 접촉이 편견 감소의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평등을 선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평등선호적이고 탈편견적인 가치와 태도를 진작시키기 위한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리고 사회운동 등이 탈편견 개인과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또한 소수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Fiske, 1998)와 평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를 높이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의 근원이 되는 범주화과정, 사회정체의 과정, 고정관념의 과정, 편견의 인지적 근원과 감정적 근원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 한 사회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 및 끈공 그리고 편견 감소 방안들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그리고 가능한대로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분야는 사회인지 분야, 집단간 관계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적 낙인, 그리고 태도 연구 분야까지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 분야로, 본 논문에서는 그 개괄적이고 중요한 연구, 이론들 그리고 주요 쟁점들만을 중심으로 다루어 이러한 광범위한 분야 각각을 보다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집단간 관계에 대한 다른 이론들 -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이나 상대적 박탈, 혹은 권위주의 성격 등의 개인차 변인들 - 을 다루지 못하였다. 집단간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한덕웅(1996)을 참고할 수 있다.

편견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실 연구들을 통하여 보편적인 편견의 과정을 밝혀 주고자 하는 중요한 연구들이고 따라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들 중 앞으로 보다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고정관념의 자동화과정에 대한 연구들과, 지각자의 동기에 의해 고정관념에 의거한 정보처리보다는 개별화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이러한 정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회 동기에 대한 연구들, 편견의 인지적 근원과 감정적 근원들이 어떤 종류의 편견 반응들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떤 판단의 상황에서 보다 중요해 지는지에 대한 연구들과, 또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서 편견을 지각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차별 반응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귀인하고 또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Mackie와 Smith(1998)는 이와 같은 편견의 연구 분야는 사회인지, 집단간 관계 그리고 태도 연구 분야 등을 포함하

는 광범위한 분야로, 각 분야에서 동일한 주제(예를 들어, 고정관념이나 태도의 자동과정 등)들이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분야들간의 의사소통이나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같은 관련 제분야들의 통합적 연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 지는 집단 범주들은 다른 사회의 경우와는 다르고 따라서 이러한 집단범주들에 대한 독창적 연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구의 연구들에서 밝힌 과정들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적 복제 연구들도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견 연구들의 궁극적 목표인 편견 감소의 심리적 방안들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 결과들에서 제안되는 바를 보다 통합적으로 응용하여 하나의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교육이나 사회운동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편견 연구는 실험연구를 주로 그 방법론으로 삼는 사회인지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체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 사회내에 존재하는 편견은 거시적-사회적 요인들 - 즉, 집단들의 역사적 갈등의 경험과 배경, 정치적·경제적 구조 등의 측면들과 집단들의 사회 내에서의 위치, 지위, 세력, 권력의 이동성과 합법성 등에 의해 중요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인들까지 포함하는 심리학적 연구들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 어떤 한 사회에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편견들은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및 사회적 배경의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보다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요인들이 어떻게 심리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쳐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편견의 심리적 과정은 보편적으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사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들도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성, 지역 그리고 앞으로는 남한-북한의 집단 범주가 보다 중요해 지고 이러한 범주에 대한 과정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회적 영향 요인 그리고 각 편견의 내용들에 대한 연구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 (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2(1), 1-36.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53-70.
- 김혜숙 (준비중). 편견 유형에 따른 감정과 인지의 효과.
- 나은영 (1997). 역고정관념의 암묵적 활성화와 인상형성: 남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1(2), 129-146.
- 유주란 · 김혜숙 (1998).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득메시지의 효과: 집단범주와 메시지유형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논문집*, 19-36.
- 이진환 (1986). 고정관념 수정에서의 내외집단 특성 대비 지각의 역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덕웅 (1996). 집단행동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argh, A. (1982). Attention and automaticity in the process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25-436.
-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of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5-118.
- Bodenhausen, G. V. (1993). Emotions, arousal, and stereotypic judgments: A heuristic model of affect and stereotyping. In D. M. Mackie & D. L. Hamilton(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 (pp. 13-3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odenhausen, G. V., & Wyer, R. S., Jr. (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554-594). New York: McGraw-Hill.
- Brewer, M. B., & Harasty, A. S. (1996). Seeing groups as entities: the role of perceiver motiva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347-370. New York: Guilford Press.
- Brewer, M. B., Dull, V., & Lui, L. (1981).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reotypes as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56-670.
- Brewer, M. B., & Millar, N. (1988). Contact and cooperation: When do they work? In P. Katz Taylor (Ed.),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pp. 315-326). New York: Plenum.
- Cialdini, R. B., Borden, R. J., Thorne, A., Walker, M. R., Freeman, S., & Sloan, L. R. (1976). Basking in reflected glory: Three(football) fiel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66-374.
- Cohen, C. E. (1981). Person categories and social perception: Testing some boundaries of the processing effects of the prior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41-452.
- Cook, S. 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In N. Miller & M. Brewer(Eds.),

-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pp. 156-186). New York: Academic Press.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cker, J., & Major, B., Steel, C. (1988). Social stigma.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pp. 504-553). New York: McGraw-Hill.
- Crocker, J., Hannah, D. B., & Weber, R. (1983). Person memory and casu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5-66.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02-513.
- Deschamps, J.-C., & Doise, W. (1978). Crossed category memberships in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141-158). London: Academic Press.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Devine, P. G., & Monteith, M. J. (1993). The role of discrepancy-associated affect in prejudice reduction. In D. E. Mackie & D. L. Hamilton(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 in group perception*(pp. 317-34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Dovidio, J. F., Brigham, J. C., Johnson, B. T., & Gaertner, S. L. (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N. Macrae, C. Stangor, & M. Hewstone(Eds), *Stereotypes and Sereotyping*(pp. 276-319). New York: Guilford.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de Vries, N., & Wilke, H. (1988). Social identification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497-513.
- Fiedler, K. (1991). The tricky nature of skewed frequency tables: An information loss account of distinctiveness-based illusory cor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36.
- Fiske, S. 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Vol. 44, pp. 155-194).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pp. 357-411). New York: McGraw-Hill
-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motivation, and attention.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psychology*(Vol. 23, pp. 1-10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iske, S. T., & Taylor, S. E. (1994).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orgas, J. P., & Fiedler, K. (1996). Us ans them: Mood effects on intergroup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8-40.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61-8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Gaertner, S. L., Mann, J. A., Dovidio, J. F., Murrell, A. J., & Pomare, M. (1990). How does coopera-

- tion reduce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92-704.
- Gaertner, S. L., Mann, J. A., Murrell, A. J.,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Haddock, G., & Zanna, M. P. & Esses, V. 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05-1118.
- Haddock, G., & Zanna, M. P. & Esses, V. M. (1994). The limited role of trait-laden stereotypes in predicting attitudes toward native peop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83-106.
- Hamilton, D. L., Dugan, P. M., & Troiler, T. K. (1985). The formation of stereotypic beliefs: Further evidence for distinctiveness-based illusory cor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5-17.
- Hamilton, D. L., & Gifford, R. K. (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milton, D. L., & Rose, T. (1980). Illusory corre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32-845.
- Hamilton, D. L., & Sherman, S. J. (1996). Perceiving person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103, 336-355.
- Hastie, R. (1980). Memory for behavioral information that confirms or contradicts a personality impression.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D. L. Hamilton, & D. E. Carlson (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J: Erlbaum.
- Hastie, R., & Kumar, P. A. (1979). Person memory: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5-38.
- Hewstone, M., Islam, M. R., & Judd, C. M. (1993). Model of crossed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79-793.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 Inman, M. L., & Baron, R. S. (1996). Influence of prototypes on perceptions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27-739.
- Jussim, L., McCauley, C. R., & Lee, Y.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ruglanski, A. W. (1990). Motivations for judging and knowing: Implications for causal attribu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 13-37). New York: Guilford.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 activation: Is prejudiced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Linville, P. W. (1982). The complexity-extens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Locksley, A., Ortiz, V., & Hepburn,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discriminatory behavior: Extinguishing the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73-783.
- Long, K. M., Spears, R., & Manstead, A. S. R. (1994). The influence of Personal and collective self-esteem on strategies of social differenti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13-329.
- Luhtanen, R., & Crocker, J. (1991). Self-esteem and intergroup comparisons: Toward a theory of collective self-esteem. In J. Suls & T.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211-234). Hillsdale, NJ: Erlbaum.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crae, C. N., Bodenhausen, G. V., Milne, A. B., & Jetten, J. (1994). Out of mind back in sight: Stereotypes on the rebou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08-817.
- Mackie, D. M., & Smith, E. R. (1998). Intergroup relations: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5, 499-52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urer, K. L., Park, B., & Rothbart, M. (1995). Subtyping versus subgrouping processes in stereotype re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812-824.
- McArthur, L. Z., & Friedman, S. A. (1980). Illusory correlation in impression formation: Variations in the shared distinctiveness effect as a function of the distinctive person's age, race, and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615-624.
- McConnell, A. R., Sherman, S. J., & Hamilton, D. L. (1997). Target entitativity: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bout individual and group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750-762.
- McGarty, C., Haslam, S. A., Turner, J. C., & Oakes, P. J. (1993). Illusory correlations as accentuation of actual inter-category differences: Evidence for the effect with minimal stimulus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92-410.
- Monteith, M. J., Zuwerink, J. R., & Devine, P. G. (1994). Prejudice and prejudice reduction: Classic challenges, contemporary approaches. In P. G. Devine, D. L. Hamilton & T. M. Ostrom (Eds.), *Social cognition: Impact on social psychology* (pp. 324-346). New York: Academic Press.
- Oakes, P. J., Haslam, S. J., & Turner, J. C. (Eds.).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Oxford: Blackwell.
- Park & Rothbart. (1982).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51-1068.
- Park, B., Ryan, C. S., & Judd, C. M. (1992). Role of meaningful subgroups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perceived variability for in-groups and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53-567.
- Pettigrew, T. F., & Meertens, R. W. (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Quinton & Major, B. (1997). Prejudice perception: The effe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the perception of justic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of UCSB.
- Rothbart & John.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behavioral episodes : A cogni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41, 81-104.
- Rothgerber, H. (1997). External intergroup threat as an antecedent to perceptions of in-group out-group homogene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06-1212.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ears, D. O., & Kinder, D. R. (1971). Racial tension and voting in Los Angeles. In W. Z. Hirsch(Ed.), *Viability and prospects for metropolitan leadership*. New York: Praeger.
- Spears, R., van der Pligt, J., & Eiser, J. R. (1986). Generalizing the illusory correl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27-1134.
- Strull, T. K. (1981). Person memory: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7, 440-462.
- Stangor, C. (1995). Content and application inaccuracy in social stereotyping. In Y. Lee, L. Jussim, & C. R. McCauley(Eds.), *Stereotype accuracy: Toward appreciating group differences*(pp. 275-2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angor, C., & McMillan, D. (1992). Memory for expectancy-congruent and expectancy-incongruent information: A Review of the social and social develop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11, 42-61.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Steel, C. M., & Aronson, J. (1995). Stereotype vulnerability and the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of African-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97-811.
- Stephan, W. G., Ageyev, V., Coates-Shrider, L., Stephan, C. W., & Abalagina, M. (1994).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s and prejudice: An internatio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277-284.
- Stern, L. D., Marrs, S., Millar M. G., & Cole, E. (1984). Processing time and the recall of inconsistent and consistent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53-262.
- Swann, W. G., Jr. (1990). To be adored or to be known? The interplay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Vol. 2). New York: Guilford.
- Swann, W. B., Jr., & Ely, R. M. (1984). The battle of wills: Self-verification versus behavioral confi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287-1302.
- Tajfel, H. (1969).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perception.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Vol. 3, pp. 315-394). Reading, MA: Addison-Wesley.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

- tions(pp. 33-48).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Fiske, S. T., Etcoff, N. L., & Ruderman, A. J. (1978).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aylor, D. M., Wright, S. C., & Porter, L. E. (1994). Dimension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In M. P. Zanna & J. M. Olson(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Vol. 7, pp. 233-255). Hillsdale, NJ: Erlbaum.
- Turner, J. C., & Brown, R. J. (1978).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01-234). London: Academic press.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 (Eds.),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233-275). Hillsdale, NJ: Erlbaum.
- Weber & Crocker. (1983). Cognitive processes in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Wilder*. (1984). Intergroup contact: The typical member and the exception to the rul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77-194.
- Wegner, D. M., & Bargh, J. A. (1998). Control and automaticity in social life.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446-496). New Yorks: McGraw-Hill.
- Wegner, D. M., & Erber, R. (1992).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03-912.
- Wittenbrink, W., Judd, C. M., & Park, B. (1997). Evidence for racial prejudice at the implicit level and its relationship with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62-274.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T.,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 Word, C. O., Zanna, M. P., Cooper, J. (1974). The nonverbal mediation of self-fulfilling prophecies in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109-120.
- Wyer, R. S., Jr., & Srull, T. K. (1981). Category accessibility: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nformation.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Vol. 1, pp. 161-198). Hillsdale, NJ: Erlbaum.

Stereotypes, Affect and Prejudice regarding Group Category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recent research and theories on prejudice and stereotypes are reviewed. The categorization processes, the process of social identity and the processes of stereotypes as cognitive shortcuts as well as the processes of stereotypes being affected by motivation and moods were discussed as cognitive bases of prejudice. Future research in this research area which needs more attention was also proposed. The research which emphasized the affective basis of prejudice was reviewed and the future research explo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se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prejudice was proposed. The new research field exploring the processe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perception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y the minority group members was also introduced in the present paper. Finally, psychological devices and schemes for reducing prejudice and intergroup conflicts in a society, applying these psychological research on prejudice were proposed: recategorization, decategorization and the subgrouping of the superordinate category, providing information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stereotypes and which cannot be discounted as exceptions, the priming of the counterstereotypes and the superordinate categories, enhancing the motivation for accurate information processing toward the target, enhancing the motivation for controlling one's prejudiced responses, the contact and the vicarious contact with outgroup members, the empathy with the stigmatized group members, and finally the formation of and the integrative education for social norms supporting and nurturing the unprejudiced attitudes and value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were proposed.